

공간 그리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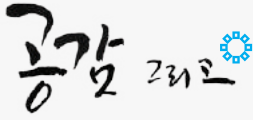


문화예술정보지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 37 Summer 2020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 37 Summer 2020

통권 37호 정기간행물(부산남 바00007) ISSN 2586-1077
등록일 2011. 6. 23. 발행일 2020. 7. 23.
담당부서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EL. 051-744-7707 www.bscf.or.kr
편집위원 문진우 신용철 심창신 양화니 이연승 이재희 홍동식
편집기획 조형수 박성관 강성민 박슬기
디자인 및 제작 효민D&P 051-807-5100



유경혜 - 홍시
80x180x170cm
비닐, 철 2018

나의 작업은 내가 유기견을 키우게 된 것을 모티브로 하였다. 사람
들에게 버려지는 것들은 물건을 비롯하여 생명까지 이루어져 있다.
그저 욕구와 편의를 위해 쓰이고 버려진 비닐을 수집하여 깨끗이
재활용해 한 마리 유기견의 모습을 만들었다. 비닐을 수집하는 과
정은 누군가에게서 쉽게 버려진 매체일 뿐이지만, 나의 손을 거쳐
다시 예술로 탄생하는 것은 버려졌던 것들이 가진 가치에 대해 다
시 상기시켜줌을 담았다.

CONTENTS

04
여는글
포스트 코로나는 과연 언제가 될까?

공감의 뱃고동

08
Space
랜선 시대의 전시,
무엇을 전달해야 할까?

14
Harmony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삶의 방식
디지털 노마드

20
Issue
대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

26
People
태도로서의 리얼리즘, 부산다움을 찾아
부산시립미술관 관장 기혜경



공감리뷰

32
코로나 시대
온라인 공연
생중계에 관한 단상

B-Side

38
병정놀이와 장난감,
그리고 텍스트

돌아와요 부산향애

44
니, 그거 아냐?
부산의
서양음악 이야기

50
누꼬?
대륙에 울려 퍼진 항일정신
먼구름 한형석

54
거기봤나?
한 지붕 아래 두 가구
2호 연립 용호동

그리고 재단

62
듣기
관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

방구석에서 누리는
온택트 컬처

66
말하기
방구석 프로젝트

포스트 코로나는 과연 언제가 될까?

글. 홍동식 부경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본지 편집위원

계절이 바뀌어 벚꽃이 떨어지고 이젠 녹음도 짙어졌건만, 여전히 마스크 착용의 나날은 계속된다. 이제는 마스크를 끼지 않고 있는 일상생활이 오히려 더 어색한 풍경을 자아낸다. 고약한 바이러스의 창궐은 현 인류의 많은 모습을 바꾸고 있다.



비대면·사회적 거리두기·언컨택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전 세계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상상 이상으로 위축시켰다. 특히 예술 분야에서는 작가들의 활동 제한으로 인해 ‘예술가 아사 직전’이라는 뉴스가 이어진다. 현 인류가 당 시대를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모두가 혼란의 미궁에 빠져 있다. 세계 어느 국가라도 백신과 치료제가 먼저 개발되길 바라는 마음은 똑같이 간절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생소했던 단어들 이젠 친근하게 느껴지는 지경이 됐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들은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 언컨택트(Uncontact) 등이 아닐까. 그런데 언컨택트라는 단어를 인터넷 사전에서 검색해 보면 놀랍게도 뜻이 검색되지 않는다.

컨택트(Contact)는 ‘사람과의 연락이나 접촉’, 그리고 언컨택트(Uncontacted)는 ‘비접촉’으로 해석이 되고 있으나, 언컨택트는 ‘연락 안 함’이라고 파파고에서 번역돼 있다. 하지만 우리는 사전적 의미가 없어도 언컨택트는 컨택트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접근한다. 최근 다양한 미디어에서는 ‘언컨택트’라는 말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저자가 오랫동안 구독하고 있는 월간 디자인 잡지의 5월호 특집기사 또한 ‘비대면 시대의 언컨택트 디자인’이다.

포스트 코로나의 화두, 랜선 예술활동

무엇보다 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역할 중 가장 본질적인 것은 지역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그 예술 활동의 결과물들로 인해 지역 사회가 문화적으로 고급화되며 윤택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비대면의 사회 속에서 창작자들은 과연 예술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화두이다. 저자는 디자인전문가로서 예술가의 입장을 모두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들의 어쩔 수 없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예술적 거리 좁히기 활동은 눈물겹도록 어려운 상황

으로 여기고 있다. 대부분의 뮤지엄은 문을 닫고 패션쇼와 갤러리, 대규모의 스포츠 경기는 언제 재개될 것인지 기약이 없다. 소규모 전시와 로컬 팝스토어도 사라졌다. 그런 와중에도 세상은 돌아가며 불안 속에서 조심스럽게, 용감하게 예술가들의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재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인간의 행복은 오감 만족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는 언컨택트라는 온라인 네트워크로 인한 비접촉 활동이 이전의 왕성한 활동을 대신하게 된다. 이는 불행하게도 세 가지의 다른 감각(후각, 미각, 촉각)을 활용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랜선을 통해 모니터에서 보이는 모습(시각)과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청각)의 활용으로만 소통하게 된다. 예술가들에게 이 상황은 너무 가혹하며,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은 또 다른 포스트 코로나를 꿈꾸게 만든다.

국경을 넘어 새로운 연대를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코로나의 종식 이후, 인간의 삶은 다양한 가치관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며 예술 활동 또한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많은 사회학자와 과학자들은 코로나 이후 인류의 삶을 다양한 모습으로 예견하고 있지만 이 또한 예견일 뿐이다. 창작자들은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등장해 오감을 모두 만족하는 코로나 이전의 예술 활동을 학습고대하고 있다.

‘밥 한 번 먹자’는 적당히(?) 친한 우리들의 평범한 인사를 건네 본 지가 꽤 오래됐지만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창작자들의 또 다른 연대가 이뤄지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사람들은 이전부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로 느슨한 협력체를 이뤄왔지만, 이 시기를 기점으로 각국의 예술가들이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와 기술적 접근으로 국경과 시차를 넘는 새로운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를 꿈꾸는 2020년 여름의 초입은 이렇게 시작된다.



공감의 벧고동

- 008** Space | 랜선 시대의 전시,
무엇을 전달해야 할까?
- 014** Harmony |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삶의 방식
디지털 노마드
- 020** Issue | 대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
- 026** People | 태도로서의 리얼리즘,
부산다움을 찾다
부산시립미술관 관장 기혜경

랜선 시대의 전시, 무엇을 전달해야 할까?

글. 김덕은 정검다라커뮤니케이션 대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기존 오프라인 전시가 어려워지자 온라인 전시를 대안으로 선택하는 전시회가 늘어나고 있다.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이라도 온라인 전시를 도입하자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다.



»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 디지털 쌍둥이 공간 구축 사례

“요즘 들어 전시 기획자들의 연락이 자주 온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연락 건수가 서너 배는 늘었다. 주된 내용은 온라인 전시회를 열고 싶은데, 관련 기술이나 서비스를 소개해 달라는 것이다.”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은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실공간을 촬영해 3차원 온라인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놀라플레이스 서비스(www.nollaplace.com)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공간과 똑같은 '디지털 쌍둥이(Digital Twin)' 공간을 인터넷상에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실제 공간을 둘러보듯 인터넷 상에서 해당 공간을 둘러보는 것으로, 심지어 걸어보는 동작도 가능하다. 이 기술은 주로 부동산이나 문화재 보존 분야에 적용되던 기술인데, 지난해 부산문화재단과 함께 전시 분야로는 처음으로 적용했다.

지금처럼 온라인 전시회를 떠나없이 고민하는 시대가 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은, 단순히 전시회에 대한 디지털 기록물을 만들자는 취지로 수영구 복합문화공간 F1963의 기획전시 'Rainbow-Wire'에 적용해 보았다. 기존에 사진, 영상, 도록 등의 형태로 남겼던 전시기록을 3차원 디지털 복제공간 형태로 제작해 전시가 끝난 후에도 온라인 전시회를 계속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다.

해당 전시회는 사라졌지만 지금도 온라인 전시 공간(www.nollaplace.com/1234)은 누구나 접속해 방문할 수 있으며, 작가의 인터뷰 영상이나, SNS 계정, 상세 프로필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대면 뉴노멀 시대, 하이브리드 전시 확대

과연 전시 작품을 온라인으로 보는 게 효과가 있을지, 회사 담당자들도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작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그 생각은 점점 바뀌었다. 정확하게는 오프라인 전시와 온라인 전시가 서



»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 F1963 기획전시 'Rainbow-Wire' 온라인 전시 구축 사례



» 온라인 전시회 샘플

로 침범할 수 없는 고유영역(장점)이 있으며, 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시가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한 것.

오프라인 전시는 갤러리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색감, 터치 등과 같은 전시 작품 고유의 예술성을 직접 느끼게 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갤러리를 함께 방문한 지인과 식사나 차를 하는 등, 근사한 경험도 제공한다. 반면 온라인 전시는 촬영 당시의 조명이나 기기 성능의 제약으로 온전한 색감이나 터치를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지인과 함께 가는 근사한 경험도 제공해주지 못한다. 하지만 온라인 전시의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또 다른 가능성이 펼쳐진다.

우선 누구나 짐작하듯, 온라인 전시는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 세계인이 감상할 수 있다. 먼 아프리카 오지에서 열리는 독특한 전시회를 집에서 구경할 수도 있으며, 지금 이곳 부산에서 열리는 전시를 유럽이나 미국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온라인 전시는 전시 작품에 대한 개인화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다. 개인화 경험은 마음에 드는 작품을 내 공간에 가상으로 설치해보고 그 이미지를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공유하면서 작품을 내 것으로 만들어보는 경험이다.

오프라인 전시의 경우 작품을 구매하기 전까지는 내 공간에 해당 작품을 설치해보는 경험을 하기 힘들지만, 온라인 전시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 증강현실 기술을 온라인 전시회에 결합하면 아프리카의 멋진 그림을 자신의 집 거실에 직접 걸어 보고 그 이미지를 캡처해서 SNS로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 온라인 전시회 샘플

“개인적으로 온라인 전시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선사하는 쪽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경험은 내 경험 또는 우리 경험으로 체험되어야 하고 그 경험의 결과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대화하며 또 다른 경험을 만들어 내면 좋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지금의 증강현실 기술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다. 유럽 전시회에 출품된 회화작품을 가상으로, 우리집에 걸어보고, 아프리카 토속 조형물을 가상으로 우리집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캡처해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경험은 온라인 전시회만이 줄 수 있는 것들이다.

실생활 밀착형 미술시장 가속화

온라인 전시회는 작품구매와도 쉽게 연결될 수 있다. 가상으로 설치해본 작품이 마음에 든다면 곧바로 주문도 가능하다. 가구나 인테리어 분야에서는 이미 이런 변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증강현실 앱으로 가구나 소품을 우리 집에 배치해볼 수 있고 마음에 든다면 즉시 주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고가품, 투자 중심의 미술시장을 ‘실생활 밀착형 미술시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개인마다 자신의 공간에 예술작품을 (가상으로)설치해보는 경험이 늘게 되면



» 가구 배치 증강현실 앱 (출처: <https://devabit.com/blog/ar-furniture-apps>)

예술작품에 대한 구매 비율도 늘어날 것이다. 자기 공간에 예술작품을 설치해 본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매우 크다.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다음 구매도 쉽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평생동안 한 점도 구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가상으로라도 작품을 설치해보는 경험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이들이 온라인 전시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은 기존 오프라인 전시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전시는 어떻게 보여줄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떻게 경험하고 소통하게 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단순히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온라인 전시가 오프라인 전시를 따라가지 못한다. 온라인 전시는 기반기술의 특성상 그것만이 가지는 특별한 장점이 있다. 최근 ICT 기술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개인맞춤형 정보제공 등에 효과를 발휘한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온라인 전시회는 오프라인에서 줄 수 없는 또 다른 경험을 안겨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엔지니어, 작가, 전시 기획자들의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이 중요하다.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러한 흐름을 더욱더 가속화하는 촉매제로도 작용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삶의 방식 디지털 노마드

글. 윤강희 노마드 공동대표

모바일이나 노트북 같은 디지털 기기와 통신망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원격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 혹은 디지털 유목민)'라고 부른다.

D i g i t a l



I N o m a d

워라벨을 위한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 노마드는 '현존하는 프랑스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는 프랑스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가 1997년 '21세기 사전'에서 처음 소개한 개념으로, '노마디즘', '가상현실' 이라는 두 키워드로 언급한 바 있다.

디지털 노마드는 인터넷,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원격 업무가 가능하기에 사무실이 필요 없다. 노트북 전원 버튼을 누르면 그 자리가 곧 사무실이 되며, 노트북을 덮는 순간 퇴근 시간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워라벨(Work-life balance)'을 선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노마드를 꿈꾼다. 또한 여건만 된다면 전 세계를 여행하며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노마드의 삶을 살 수 있다.

노마드 라이프의 첫걸음

디지털 노마드가 되기 위한 자격과 요건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다. 지금 당장 어디로든 떠날 마음의 준비와 기본적인 경비, 그리고 지속적인 '노마드 라이프'를 유지하기 위한 본인만의 생계유지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 있다.

물론 노마드 라이프에 유리한 직업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IT개발자, 디자이너, 디지털 마케터, 온라인 셀러, 여행 작가, 유튜버, 온라인 강사 등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노마드 라이프로 가는 발걸음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다.

필자는 산업 디자인 전공 출신으로 창업을 위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외주 일을 하다 보니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됐다. 이러한 질문과 고민에서 디지털 노마드라는 삶의 방식을 알게 됐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서울을 떠나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실천했다.

당시 제주도는 필자 기준으로 육지에서 비행기를 통해야만 갈 수 있는 해외(?)였고 도시와는 다른 풍경, 언어의 장벽이 전혀 없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었다. 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다시 원래 삶으로 되돌리는 것도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언젠가는 떠난다, 노마드의 현실

먼저 제주에 가서 해결해야 했던 일은 한달 여 머물 숙소와 구직활동이었다. 원래 하던 외주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터라, 현지에서 일을 구하는 것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관광업, 어업, 농업 등이 주요 산업이다. 한 달 정도만 살아보기로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일자리를 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제주도에서도 디자인 외주 일을 해야 했다. 물론 도시에서 하던 생활보다는 훨씬 만족도가 좋았다. 외주 일은 마감 기간만 잘 지키면 되



기 때문에 일이 끝남과 동시에 바다로 산으로 들로 나가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육지보다 더 많은 생활비가 든다. 그래서 더 많은 외주 일을 해야 했다.

디지털 노마드는 이러한 이유로 생활비가 조금 더 적게 드는 지역을 선호한다. 전 세계 디지털 노마드가 동남 아로 몰리는 이유다. 이들은 생산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와 물가, 인프라 덕분에 노력 대비 마진(?)이 높다.

다만 상대적으로 부유한 외국인이기 때문에 현지인이 해당 지역에서 밀려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노마드는 '언젠가는 떠난다'는 전제가 있는 만큼, 평생 살아야 하는 현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출퇴근 없지만, 주말도 없다

최근 노마드 라이프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은 일하면서 여행도 할 수 있는 삶의 방식, 즉 자유롭게 일하는 업무환경을 부러워한다. 실제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그 와중에 일도(?) 하는 디지털 노마드의 최대 장점은 자율성이다.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출근길 만원 지옥철에 몸을 우겨넣을 필요도 없다. 더욱이 효율적인 스케줄 관리로 최소 4시간 정도만 일해도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

이들은 업무 외에 남은 시간에는 자기개발과 여가 생활을 즐긴다. 그러다보면 시야도 넓어지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할 확률이 높아진다.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업무를 가진 이라면 더욱이 장점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여유 있는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비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노마드 역시 여가 생활에 지출하는 비용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결국 디지털 노마드는 지속 가능한 업을 찾아야 한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이들의 주요 과제이다.



D i g i t a l N o m a d



한편, 출퇴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일과 여가의 경계가 모호하다. 주말, 공유일이 따로 없고 쉬다 가도 갑자기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자율성이 부여된 만큼 책임이 크다. 일보다 여가에 더 비중을 두면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업을 찾는 것, 본인 나름대로 효율적인 스케줄을 짜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또한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상사나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을 위해 현지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 클라이언트가 있는 곳과 시차가 많이 날수록, 낮에 자고 밤에 일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아직까지 디지털 노마드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노마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디지털 노마드로 살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스스로 생존법을 터득해야 한다.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오픈 마인드', '적응력', '계획성'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강조하고 싶다.

우선 혼자서 살아남는 것은 참 외롭고 힘들다.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싶어 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픈 마인드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나의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적응력이다. 디지털 노마드로 생활하다보면, 어떠한 부분에서든지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주거 환경, 새로운 문화 등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적응력이 필요하다. 때로는 고정 관념에 얽매어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원래'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적응력을 키우는 팁이다.

세 번째는 계획성이다. 디지털 노마드라면 즉흥적으로 어디로든 아무렇지 않게 떠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엄청난 적응력과 임기응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항상 미리 계획을 짜두는 편이 좋다.

디지털 노마드의 지속가능성

디지털 노마드의 삶의 방식은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상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디지털 노마드는 유행처럼 반짝하는 트렌드가 아니다. 최근 AI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업무 자동화가 더욱 가속화되기 시작했고, 기계가 정규직을 대체하는 것은 전 세계 노동 시장에서 큰 흐름이 됐다. 여러 경제학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노동의 80%가 자동화되고 나머지 20%는 창의적인 업무만 남게 된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특히 창의적인 업무에서는 유연하고 자유로운 업무 환경은 필수이다. 실제로 미국 젊은 층에서는 고용 안정보다 자기 성장을 도모하고 삶과 업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유연한 고용 형태와 이러한 업무 환경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정규직보다는 프리랜서나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동자들이 상승하는 추세이며, 미국은 48% 이상의 기업이 재택근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장기화로 지역 문화예술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사람과의 비대면,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문화예술가들의 활동 공간마저 소멸돼 버렸다. <공감 그리고>는 지역 문화예술 관계자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1부 재난상황에서의 예술인 복지, 2부 코로나 시대 예술 형식)'을 주제로 특별대담을 가졌다.



(왼쪽부터) 신용철 부산민주공원 학예실장(본지 편집위원), 김유리 키스더북스 대표
이지훈 필로아트랩 대표(좌장), 구현욱 아이엠아이 총감독, 심문섭 예술은공유다 대표



이지훈 ___ 이번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공연예술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더군다나 이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고 또 반복될 수도 있다고 본다. 현 상황은 단순히 일회성 이슈가 아니다. 뭔가 준비를 하고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이렇게 특별대담을 가지게 됐다. 우선 1부 <재난 상황에서의 예술인 복지>와 2부 <코로나 시대 예술 형식>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1부_재난상황에서의 예술인 복지



신용철 ___ 코로나 재난 상황으로 인해 공공기관에서의 문화예술 사업예산이 전면 삭감됐다. 이미 확정된 사업예산이 삭감되면서 3~4년 전부터 준비했던 작가들의 전시가 무산됐다. 또 하반기에 하려던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전시와 6명의 작가가 참여한 그룹 기획전도 없던 것이 됐다. 작가들의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시를 하지 못하는 작가들은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큰 기획 전시가 무산되면서 결국 나쁜 큐레이터가 됐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피해 당사자인 작가들이 이루 말도 못할 열패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지훈 ___ 본의 아니게 악역을 맡은 것 같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전시관, 공연장 폐쇄 등은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공적 예술기관과 작가 간 사전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이 빠져 있어 매우 안타깝다.

신용철 ___ 대부분 구두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대안 대책도 없이 전시관을 닫아버리면 피해 증명이 어렵다. 공적 기관과 협의했던 계약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근거가 없는 것이다.



구현욱 ___ 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상 피증명을 해야 하는 역할은 오로지 예술가에게만 있다. 반대로 예술가들이 (피해 증명을 위한)기관 요청 시 그 과정 중에 있었던 행위, 또는 계약에 관한 내용들을 증빙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능동적인 대처는 찾아볼 수 없다.



심문섭 ___ 올해 3월 공연 예정이었으나 11월로 연기하는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됐다. 앞서 1월 코로나 발병이 나자마자 달려가서 계약서부터 작성했다. 금전적으로 해결은 되긴 했지만 공연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이지훈 ___ 기관에서 적극 나서 피해 작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질병관리본부처럼 위기상황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상황에서의 문화예술인들을 전담해주는 본부가 필요하다.



김유리 ___ 독일 예술인들은 평소에도 매월 급여와 유사한 체계의 수당을 받고 있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재난상황에 대비한 준비가 잘 돼 있기에 최소한 굶어죽거나 길바닥에 나앉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 과거 지역 예술인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또따또가>에 입주하면서 “2년 후 당신들은 자립해야 한다”는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심문섭 ___ 예술가들의 언어로 자립이라는 말이 애매한 지점이 있다. 개인적으로 모든 예술가들은 스스로 일단 자립했다고 본다. 예술인들에게 자립이라는 말로 가게 되면 자꾸만 베풀어야 한다는 식의 해석으로 프레임을 짜는 것도 문제가 있다.

김유리 ___ 자립이라는 측면이 사실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자립을 못하게 됐다. 다른 방법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 예술은 다양한 종류와 장르가 있는데 돈 안 되는 예술도 꼭 필요하다. 사실 우리가 십 수 년 전부터 이런 시스템을 계속 요구를 해왔어야 했다. 언젠가는 재난 상황이 닥칠 것이고, 예술가들이 이런 곤란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이지훈 ___ 원래 예술은 기초적인 지원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게 안 되니까 이번 문제에서 다 불거져 나오는 것 아닌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터졌을 때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체계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는 그런 초석을 다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프랑스부터 시작해 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는 예술가실업수당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다만 어디까지 예술가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한 고민이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예술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버틸 힘은 생길 것이다.

심문섭 ___ 영국에서는 각 분야별로 협회에 가입돼 있으면 단체에 따른 계약서 작성 기준이 있어 예술가들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는,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서울만 하더라도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복지재단 등 각 유니온들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반면 부산에서는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술인 복지를 만들어내자고 이야기는 하지만 뜬구름 같은 소리에 불과하다.

이지훈 ___ 예술인 등록을 제대로 해서 기초적인 예술 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면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을까 한다. 유럽의 사회적 기구는 최소한의 인건비만 받고 모든 행정서류 절차 및 자문을 대행해준다. 부산에서도 예술경영지원센터 같은 예술인들을 전담해주는 기구 및 기관이 있어야 한다. 예술인들의 힘든 부분을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특히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준하는, 그에 버금가는 기구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

“예술인들의 힘든 부분을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특히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준하는, 그에 버금가는 기구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

신용철 — 실현가능성이 낮지만 부산문화재단이 예술인 기본소득과 복지를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업무를 1순위로 했으면 한다. 작품 활동을 위한 예술인들의 건강을 비롯한 일상적인 관리에서부터 거점시설 확보 등 지금 재단이 하고 있는 물질 기반의 차원에서 벗어나 다른 형태의 플랫폼으로 전환됐으면 한다.

심문섭 — 무엇보다 지원 제도들이 작품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 예술가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미술관, 또는 공연장에서는 작품 중심으로 가되 사람과 예술 활동에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은 문화재단이 했으면 한다.

이지훈 — 예술인실업수당과 사회보장제도 등은 과거에는 꿈만 같은 일이었다.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이제는 급격히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아 기대되는 측면도 있다. 다음으로 예술의 형식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예술가들의 활동 공간이 소멸됐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으로 다가온다. 최근 한 작가에게서 ‘전시, 또는 공연을 꼭 하나의 형태로만 봐야한다고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됐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 나중에는 공연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앞으로 일정 비율은 영상 콘텐츠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임은 더욱 분명해졌다.

2부_코로나 시대 예술 형식



심문섭 — 요즘 예술계 화두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는 것이다. 앞으로 밀도 있게 해결해야 할 4차 산업시대 과제가 조금 더 당겨졌을 뿐이다. 실제로 영상을 통해 공연예술이라는 아날로그가 비슷한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중에 다양한 기술적 발전이 따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본질은 영상 퀄리티의 문제가 아닌 영상매체에 대한 이해와 플랫폼 활용도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연예술만 집중해서 본다면 핵심은 작품이 아닌 사람을 보러간다는 것이다. 관객 중 90% 이상은 사람을 보러간다. 나머지 10%가 작품이 궁금해서 간다. 오로지 작품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영상매체를 활용한다면, 스타트하는 순간 공연예술은 망하는 길이 된다. 결국 온라인 구독자를 공연장 관객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브랜딩이 우선돼야 하고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공연예술의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도 있다. 결국 좋은 예술가들은 관객이 만들어낼 것이다.



신용철 — 지금은 큐레이터지만 학창시절 미술 성적이 제일 안 좋았다.(웃음) 더 이상 학교에서의 예술교육은 끝났다고 본다. 유튜브에서는 훨씬 더 흥미로운 콘텐츠로 미술사를 알려주고, 예술의 다양한 장르를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해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전시만 하는 미술관의 역할에서 벗어나 발상을 바꿔야 한다. 가령 미술관에서는 전시 작가들의 유튜브 제작 공간을 지원해주는 등 새로운 플랫폼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일반인들이 전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미술학교를 운영해 수준 낮은 생활예술에 머물지 않고 예술창작, 감상교육으로 더 나아가야 그림을 보는 수준이 높아지고, 그것이 또 작품의 구매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지훈 — 최근 부산지역 유튜브 채널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예로 가덕도 다큐나 부산의 공간과 건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조난단의 상상이상> 같은 채널은 내용은 참 좋는데 조회 수가 현저히 낮다.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체적으로 편집이나 구성이 지루한 면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봐야 한다.



김유리 — 일단 ‘나 좀 봐봐’라는 식의 ‘어그로’를 잘 해야 한다. 그럼에도 유튜브 시청자들은 종잡을 수가 없다.(웃음) 최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유튜브 강원 채널에 출연해 ‘완판남’으로 등극했다. 80~100t씩의 감자를 14차례에 걸쳐 평균 1분 40초 만에 완판을 기록했다.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다. 작품 영상을 업로드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들에게 적극적인 ‘어그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점잖은 척하는 작가들에게는 실상 어려운 일이다.

이지훈 — 수많은 유튜브 채널 가운데에서도 크리에이터들의 예술작품에 관한 영상 콘텐츠도 많이 올라온다. 이러한 크리에이터와 기성 예술가들이 서로 만나고 부딪혀보면 새로운 흐름과 발견이 있을 수 있다.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예술을 더 키워야하는 측면이 있다.

신용철 — 충분히 공감한다. 예를 들면 미술관이 작가들의 작업실을 연계하는 허브가 됐으면 한다. 작가들의 작업실을 영상 콘텐츠를 통해 보여주는 방식으로 공적 플랫폼 지원에 나선다면 일반인들도 쉽게 예술인들을 만나 소통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심문섭 — 결국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에 적응하려면 예술인 스스로를 마케팅할 수 있는 고도의 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지훈 — 덧붙여 코로나가 실내 폐쇄된 공간에서 감염 전파가 치명적이라면 야외에서는 충분한 거리두기로 예방할 수 있어 오히려 소규모 거리공연이 재조명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본다.



“예술가들의 본질은 치유의 역할에 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누가 누구를 먼저 치유할지 선후가 따로 없다는 데 모두 공감할 것이다.”

신용철 — 예술은 틈이나 구멍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시기에는 보다 소규모로, 지엽적이고 수공예적인 예술 활동이 필요하다.

김유리 — 코로나로 인해 ‘먹방’ 유튜버가 호황인 가운데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작가들은 대중과 더 멀어지고 있다.

이지훈 — 분명 예술가들에게도 위로와 치유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스스로 시민들과 함께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김유리 — 코로나 사태가 올해 연말이 돼도 종식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 잘못은 아니지만 엄청난 무력감이 든다.

이지훈 — 예술가들의 본질은 치유의 역할에 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누가 누구를 먼저 치유할지 선후가 따로 없다는 데 모두 공감할 것이다. 예술 형식에 대해 정리하자면 영상 콘텐츠 제작에 앞서 영상매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플랫폼 활용도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공신력을 줄 수 있는 온라인 예술마당, 즉 일반인과 예술인이 쉽게 접근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통합된 플랫폼이 마련됐으면 한다.



태도로서의 리얼리즘, 부산다움을 찾다

부산시립미술관 관장

글. 서평주 <공간 힘> 대표

기혜경

“취임 후 가장 먼저 미술관 방문 관람객 만족도 조사와 전화면접을 통해 인지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보니 부산시립미술관은 ‘박물관 같은 미술관’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미술관의 정체성이 이렇게 각인돼 있는 것을 바로 잡는 전시들을 내년부터는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술관장으로서, 또 예술계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고민하게 됐던 것 중 하나가 있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미술 감상의 간극입니다. 저는 실제 작업을 앞에 두고 감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단시간에 소통방법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전시나 교육이 온라인의 틀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 개발 역시 필요합니다. 특히 기존의 디지털화 된 데이터(소장품이나 미술자료)가 있어야 가공이 가능한데, 그러한 1차적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코로나 사태가 4차 산업시대의 미술관 상을 미리 엿볼 수 있게 한 계기가 된 것도 같아요. 앞으로 ‘디지털 아카이브’와 같은 미술관의 토대가 되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려고 합니다.

취임하기 전과 현재의 부산, 미술 씬 등에 대한 인상은 어땠나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일하며 근대 관련 전시를 많이 했었고 그 과정에서 송혜수, 양달석 선생님 등과 같은 1세대 부산 작가 분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일정 깊이 이상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은 갖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대구’는 실험미술의 본산지 같은 느낌, ‘대전’은 테크놀로지 아트, 개념적 작업이 주도하는 곳, ‘광주’는 광주 나름의 한국화의 맥을 잇는 곳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반면 ‘부산’이라고 했을 때 형상미술이라고는 하지만 1980년대 미술과의 어떤 차별점, 또는 부산만의 형상이라고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려 해도 많지 않은 상

항입니다. 부산 미술을 연구한 자료나 전시의 양에 비해 아직은 정체성 등이 잘 부각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때문에 부산을 형상 미술로 특정하기보다 '태도로서의 리얼리즘'으로 확대를 한다면, 부산의 맥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단순 정리를 넘어 부산이라는 지역, 부산 미술인들의 시각들을 같이 아울러낸다면 '부산다움'이라는 것을 건져 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에 관한 철학이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작가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산시립미술관이 인지도 부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개선해야 합니다. 아마도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시각의 경우 '부산'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경쟁을 하도록 포맷을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또한 미술관은 작가들의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비평가들의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해서 이번 젊은 시각전에서는 서울에서 활동을 하는 비평가들은 부산에서 활동하는 작가와, 부산에서 활동하는 비평가는 서울작가와 매칭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통해 시너지효

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변화의 초기단계이고 이러한 변화 또한 수정,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관람했던 전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2004년 토탈미술관 <당신은 나의 태양>이라는 전시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 전시는 이영철 선생이 큐레이팅한 전시인데, 큐레이팅 혹은 큐레이터라는 것은 미술사를 풍요롭게 만들고, 지나간 미술들을 다시 보게 만드는, 또 더 나아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전시입니다. 당시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10년 단위로 정리된 정사로서의 미술사 전시를 개최하던 시기입니다. 국립현대가 써내려가고 정리한 정사로서의 미술사와는 달리 이영철의 이 전시는 동시대 미술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맥락 찾기'를 해야 하는지를 나름의 혜안을 갖고 제시한 것이죠.

임기 동안 부산시립미술관에서 꼭 이뤄내야 할 과업이 있다면

부산은 센텀시티를 비롯해 미래의 첨단도시라는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는데, 막상 부산시립미술관에 와서 보니 시설과 시스템이 너무 낙후돼 있었어요. 학예사분들



미술관의 정체성이 이렇게 각인돼 있는 것을 바로 잡는 전시들이 내년부터는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 관심이 역시 동시대 미술에 있고, 단순히 매체의 변화를 보는 것 보다는 동시대 미술계의 구성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큐레이터 스스로가 자신들의 관심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이 각자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러한 노력이 빛이 나려면 그것 이상으로 뒤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받쳐줘야 하는 시스템이 작동돼야 하는 것이죠. 하나의 전시를 만든다면 특정 주제에 대해 논의가 되도록 이야기하고 홍보, 교육, 아카이브 등의 여러 시스템이 함께 가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부산미술사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 연구 역시 아직 미비합니다. 소장품 3,000여 점과 미술자료가 5만 점이 넘는데, 이들 자료가 아직도 데이터베이스화돼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 도시 부산을 지향하지만 미술관이 가진 중요한 작품과 자료가 아직도 외장하드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그 심각성이 부각됐는데요, 4차 산업시대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미술관은 아직 온라인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이들 시스템을 구입해 사용하는 방법을 협의 중입니다. 제 임기가 최장 5년인데, 이런 일들은 단기간에 눈에 띄지 않는 일들일 지도 모르지만 제가 있는 동안은 미술관의 기본과 토대를 다지고 싶습니다.

<어린이 미술>에 대해 상당히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만큼은 어려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취향으로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적어도 국립미술관이 운영하는 어린이 전시장은 단순한 체험 존이기보다 미술로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조형 언어들을 감상하고 체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시립미술관에서는 '교육팀'을 따로 만들어 에듀케이터를 중심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부 구성원들과 특별한 소통 방법이 있다면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경우에 따라



해결책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여기 와서 일대일 면담을 했었습니다. 각자의 지향점과 미술관에 대한 생각, 본인이 하는 일과 관련해 미술관의 개선 지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처음 온 관장으로서 의견을 받아 적어뒀던 것이고, 지난 6개월 동안 각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들으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전시 기획이나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부산시립미술관의 기본적인 전제는 부산 미술사를 정립하는 기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부산 미술을 조명하고 맥락화하기 위해, 현재 시스템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작게라도, 어떻게든 연구를 통한 소장품 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부산시립미술관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입니다. 미술계 자체의 패러다임, 동시대 미술계의 사회현상, 미술계에 대해 이야기 하는 기획들과 더불어 관람객들이 즐기는 공간, 대중성과 전문성을 갖춘 곳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공연 리뷰

032 코로나 시대
온라인 공연 생중계에 관한 단상



on 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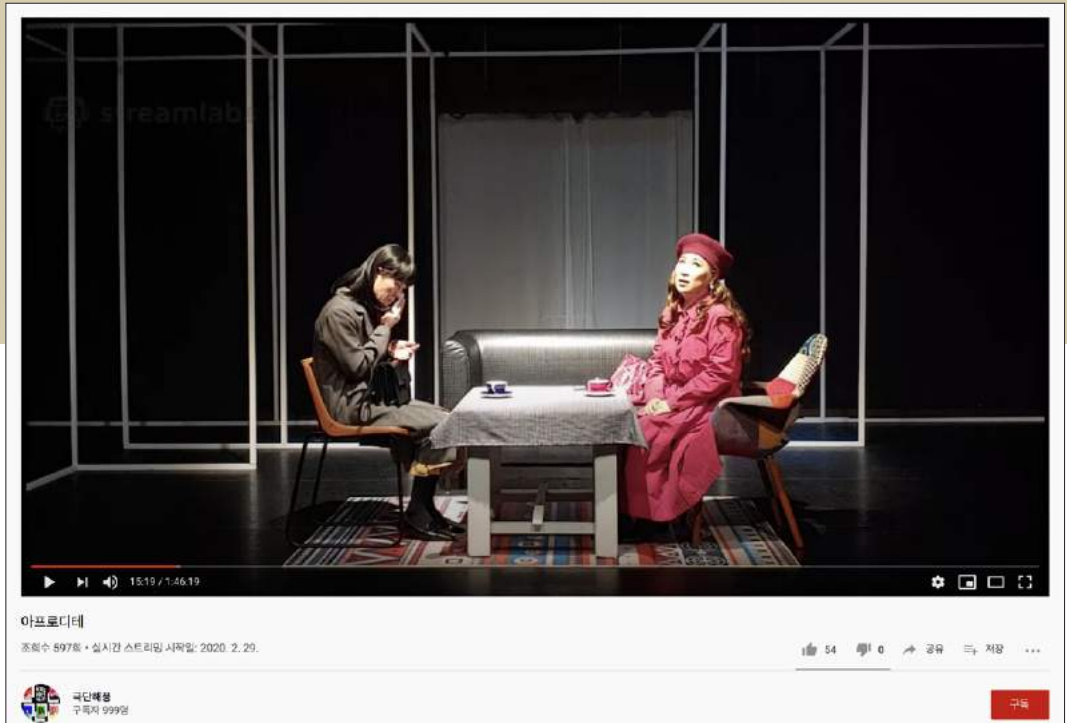


코로나 시대 온라인 공연 생중계에 관한 단상



글. 이인우 사진 노동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온라인 공연 생중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지역과 국가를 넘어 셀 수 없이 많은 유튜브 공연 생중계에 대해 혹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라 예상하기도 한다. 설사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 공연 생중계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극단 <해풍>, 연극 아프로디테

온라인 공연 생중계 열풍

올해 2월 29일 극단 <해풍>은 유튜브를 통해 연극 '아프로디테'를 실황 중계했다. 코로나로 인한 부산 최초의 온라인 생중계였던 걸로 알고 있다.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 아닌 모바일로 유튜브 중계를 할 경우, 계정 구독자가 1,000명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그 때 알게 됐다. 적은 지역 예술인들이 그 실황 중계와 결과에 주목했다.

3월이 되면서 유튜브를 통한 본격적인 온라인 생중계가 진행됐다. 부산에서는 부산문화회관의 <배시시TV>가 5월까지 꾸준히 공연 실황을 보여주고 있고 예술의 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을 비롯해 멀리 영국국립극장(National Theatre)의 작품까지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4월 16일 부산민예총에서 세월호 6주기 추모 공연을, 5월 18일 '5·18 민중항쟁 40주년 기념 대동문화제'를 차례로 생중계했다. 이만하면 온라인 생중계가 하나의 흐름이 될 것이라는 견해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릴 만도 하다.

유튜브 생중계, 공연도 본방사수?

현재 예술의 전당 일부 공연을 제외하고 온라인 생중계 공연을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게 돼 있다. 즉 실황을 놓치더라도 언제든 찾아볼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 현재의 온라인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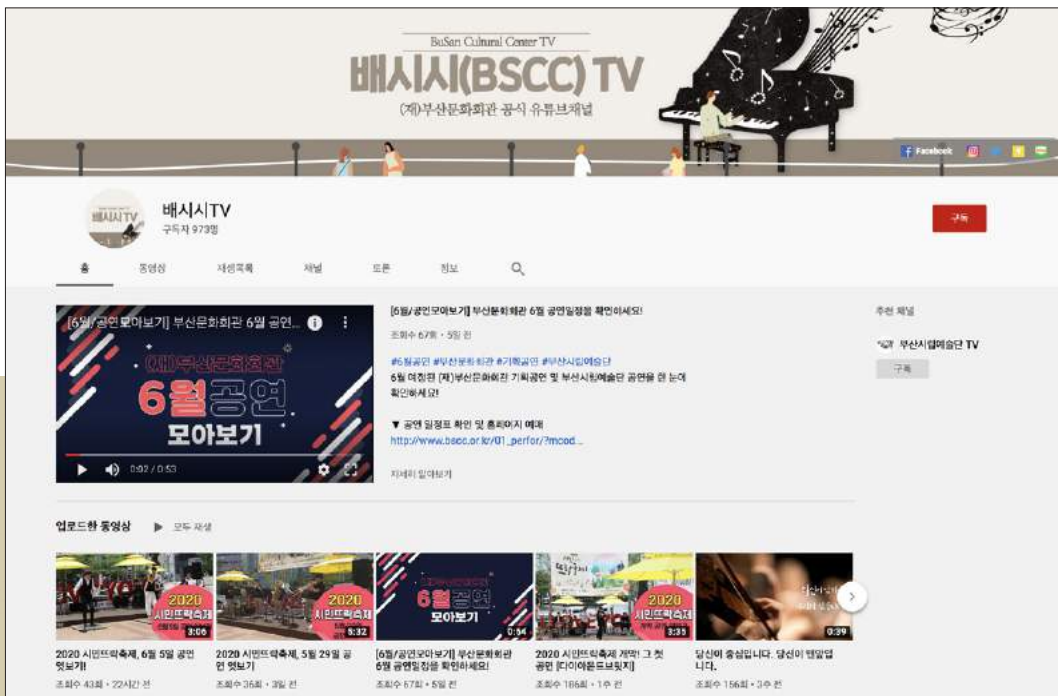
중계에 대해 생각해볼 첫 번째 거리가 생기게 된다.

TV 드라마 분방 사수조차 큰 의미가 없어진 시대에 굳이 화면을 통해 나오는 공연을 두고 관객들이 생중계를 고집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이미 현존하는 매체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나 있으며, 사람들의 문화 향유 패턴도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시간에 공연을 본다는 것은 공연장에서만 가질 수 있는 매력이 있어서다. 하지만 그 시간이 아니라도 영상을 통해 동일한 공연을 볼 수 있다면 굳이 시간을 지정하면 서까지 생중계를 볼 필요는 사라진다.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것, 새로운 미디어가 우리에게 준 선물을 마다할 이는 없다. 특히 온라인 생중계가 실제 현장에서 보는 것보다 못 하더라도 비슷한 감동은 있어야 하는데, 최근 3개월 동안 부산에서 상영된 온라인 생중계 공연을 살펴보면 그런 면에서 다소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여기서 두 번째 생각할 거리가 나온다.

급조된 촬영현장, 기술적 한계 여실

극단 <해풍>의 '아프로디테'는 모바일 카메라 하나만으로 중계를 했다. 극단도 이런 중계가 처음이다 보니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 인간의 눈과 카메라 렌즈는 다르다. 그래서 객석에서 무대를 볼 때 느끼



» 부산문화회관 유튜브채널 배시시

는 조명과 영상을 통해 보이는 조명이 다소 달라진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공연 조명은 작품 감상에 걸림돌이 되었던 게 사실이다. <배시시TV>를 통해 생중계된 블랙스트링의 공연에서는 공연 초반에 음향이 잘 들리지 않아 무척 안타까웠다. 수준 높은 연주 공연 중에 중계를 통해 나오는 음향이 적절히 조율돼 있지 않았다. 당시 공연장이 (시설이 좋지 않은)부산시민회관이란 걸 고려하더라도 아쉬움을 달래기는 역부족이었다. 역시 <배시시TV>를 통해 얼마 전 생중계 됐던 '한국 대표 춤꾼들의 춤판'의 경우, 카메라 편집으로 인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카메라 워킹이나 편집은 이전 공연 중계보다 분명히 세련되게 보였지만, 그 편집으로 인해 춤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결과물이 됐다. 한국 춤은 특히 발동작에서 손끝까지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 (편집을 통해 나오는 영상으로 인해)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만 봐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미 그 순간 생중계, 라이브 공연을 보는 매력은 사라지고 만다.

물론 모두 기술적인 문제들이다. 하지만 공연이라는 것, 그리고 생중계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면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최근 2~3개월 동안 부산에서 진행된 유튜브 생중계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실황·녹화의 효율적 배분 필요

이미 유튜브, DVD 등을 통해 지구 반대편에서 있었던 수많은 공연들을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보고 즐기는 세상이다. 그리고 공연 실황들의 영상 수준은 최상위급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사람들의 눈과 귀는 어느덧 그런 수준에 맞춰져 있다. 처음이라서, 지역이라서, 돈이 없어서 등의 핑계는 정말 싫다. 관객들에게 충분히 감동을 줄 실력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들의 공연을 그런 이유로 감동의 깊이를 줄여버린다면 어찌 찾아서 볼 마음이 생기겠는가.

그렇다고 코로나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공연 생중계를 포기하자는 말은 아니다. 기술적인 면을 비롯해 공연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좀 더 수준 높은 실황 중계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굳이 실황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공연이라면 녹화 공연으로 더 좋은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자는 것이다. 무조건 실황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실황을 해야 할 상황과 녹화로 써 보여줄 공연에 대한 배분과 제작에 더 신경을 썼으면 한다.

최근 적잖게 <배시시TV>의 공연을 온라인으로 보고 있지만, 끊임없이 드는 생각은 공연을 현장에서 보고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다. 공연은 역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어야 그 감동을 오랫동안 간직하게 된다. 힘든 상황이지만 하루빨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공연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예술의 감동을 만끽하고 싶다.

어두운 극장의 내음, 조명의 열기, 무대 바닥의 먼지, 객석의 수군거림, 대기실의 분주함, 스태프들의 무전 소리, 공연을 알리는 시작 종소리, 그 모든 것이 그리워지는 요즘이다.

B - Side

038 병정놀이와 장난감, 그리고 텍스트



병정놀이와 장난감, 그리고 텍스트

글. 최범 디자인 평론가

흔히 '밀덕(밀리터리 덕후)'이라 불리는 밀리터리 마니아의 세계는 넓다. 필자가 다른 밀덕들과 다른 점은 단순히 밀리터리 지식이나 내러티브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조형문화의 특성을 읽어내기 때문이다. 밀리터리 모형이 내게는 일종의 문화적 텍스트인 것이다.

모형 소년에서 중년으로

중학생 때(1969~71년) <학생과학>이라는 잡지를 구독했다. 한 번은 베트남전에 사용된 미국 군용기 특징이 실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군이 운용하던 F4 팬텀과 F5 프리덤 파이터 전투기 밖에 모르던 시절이라 처음 보는 다양한 기체들의 세계에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갔다. 과학 잡지여서 군사 관련 기사가 많았고 즐겨 읽었다.

잡지에는 중고장터 코너도 있었는데, 부산에서 누군가가 밀리터리 모형 판매 글을 올려 즉시 약속을 잡았다. 당시 나는 마산에 살고 있었지만 고향이 부산이어서 자주 오가곤 했다. 판매자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었는데, 집이 용두산 공원 바로 아래 중앙동에 있었다. 탱크 등 밀리터리 모형이 가득한 진열장을 본 내 눈은 휘둥그레졌다. 그 형의 아버지가 사업차 일본을 자주 가는데 그럴 때면 모형을 사다준다고 했다. 여러모로 부유해 보이는 그 집이 너무 부러웠다. 하지만 내가 가진 돈으로는 약간 파손된 독일 탱크 한 점을 겨우 살 수 있을 뿐이었다. 나는 탱크를 담은 상자를 다락방에 올려놓고 가끔씩 꺼내보곤 했다. 한 번은 친척 누나가 그것을 발견하고 다 큰 녀석이 웬 장난감을 가지고 노느냐는 듯이 말해서 창피했던 적이 있다.

10대 후반에는 서울 삼선교에 있는 아카데미과학이라는 모형점에 자주 갔었다. 점원 아가씨가 예쁘기도 하고 다양한 모형 키트들을 구경하는 것이 마냥 즐거웠다. 하지만 당시 형편으로는 한 달 동안 용돈을 모아야 겨우 하나 정도를 장만할 수 있었으니 주로 눈요기roman 만족해야 했다. 20대에 접어들고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웬지 모형을 갖고 노는 것이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어



Military Mania



멀리하게 됐다.

한참 시간이 지난 2000년대 초쯤 갑자기 옛 생각이 나 조립용 키트를 몇 점 사서 다시 만들어보기로 했다. 조그만 부품 조각을 절단하는데 형체가 잘 보이지 않았다. 결국 만들다가 포기를 했다. 나중에 안과에 가봤더니 노안(老眼)이라고 했다. 노안이라고 하면 돋보기 쓰는 할아버지들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40대 중반인 내게 이미 나타났던 것이다. 이후 나는 시간이 없기도 해서 모형 조립은 포기하고 대신에 ‘다이캐스트’라고 부르는 완성품 모형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저렴한 중국제여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10대 시절 시작된 나의 밀리터리 모형 취미는 세월을 건너뛰어 60대까지 이어지게 됐다.

밀리터리가 취미?

흔히 ‘밀덕(밀리터리 덕후)’이라고 불리는 밀리터리 마니아의 세계는 넓다. 크게 지식 마니아, 재현 마니아, 모형 마니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지식 마니아는 밀리터리에 대한 온갖 전문적이거나 아니면 ‘트라비아(trivia)’라고 부르는 시시콜콜한 지식에도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다. 이는 일종의 ‘지식 자랑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물론 개중에는 실제 국방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유명한 유튜버도 있다. 재현 마니아는 군복 코스프레나 서바이벌 게임 같은 전쟁놀이를 하는 사람이다. 이 중에는 ‘리인액트먼트(reenactment)’라고 본격적인 역사 재현 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겠다.

그에 비하면 밀리터리 모형은 공작이나 수집 취미에 속한다. 이런 취미를 가진 사람들은 정교한 수집용 모형이 어린이용 장난감과와는 다르다면서 차별화하고자 하지만, 나는 모형이 장난감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은 물론 어린 시절 병정놀이의 연장일 수도 있다. 또 예전에는 과학교재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것 역시 장난감을 부정적으로 보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려는 위선적인 엄숙주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물론 밀리터리 취미는 전쟁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어두운 취향(dark taste)’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퇴행성이 있음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전쟁을 좋아하는 것과 밀리터리 취미를 갖는 것은 분명 다르다.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전쟁과 밀리터리가 인간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장난감이냐 수집품인가

나는 딱히 수집벽이나 골동취미가 없는 편이지만, 단 하나 밀리터리 모형 수집 취미가 있다. 밀리터리 모형은 분명 도자기나 그림 같은 우아한 품목은 아니지만 이 역시 엄연한





수집품으로서 문화적인 의미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수집은 지식을 낳는다. 세계 각국의 탱크, 비행기, 함선 등의 모형을 수집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그 디자인과 함께 문화적 특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게다가 나는 디자인 평론가가 아닌가.

내가 밀리터리 모형에 취미를 갖게 된 것도 디자인적인 관심 때문이다. 탱크나 전투기 같은 사물들은 분명 일상 생활용품과는 다른 형태를 가지며 그것만의 독특한 매력에 있다. 현실에서는 무서운 살인 무기이지만 순수한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도 사실이다. 내가 다른 밀덕들과 다른 점은 단순히 밀리터리 지식이나 내러티브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조형문화의 특성을 읽어내기 때문이다. 독일 전차에서 고딕적인 분위기를 느끼거나 프랑스 전차에서 엘레강스함을 발견할 때 이것은 분명 독문학자나 불문학자와는 다른 관점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밀리터리 모형이 내게는 일종의 문화적 텍스트인 것이다.

2014년에는 문화역 서울 284(구 서울역사)에서 열린 '여가의 새발견'이라는 전시에 초대돼 수집품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사실 내게 밀리터리 모형은 어린 시절 고향 부산에서의 기억을 지금까지 연결시켜주는 오브제이기도 하다. 중년을 지나 노년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점점 부담스러운 물건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장차 이것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는 언젠가 내 마음속의 소녀에게 물어봐야 할 일이다. 누구나 자기 안에 아이 하나씩은 키우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kylife

대한민국
공정
경제

돌아와요 부산향애

044 니, 그거 아냐? | 부산의
서양음악 이야기

050 누꼬? | 대륙에 올려 퍼진 항일정신
먼구름 한형석

054 거 가봤나? | 한 지붕 아래 두 가구
2호 연립 용호동

사진. 문진우 사진가

부산의 서양음악 이야기



글. 남영희 문화연구자, 부산대학교 강사

아직 '부산'이라는 이름조차 없었던 구석기 시대, 이곳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 차갑고 매서운 해풍이 자작나무 숲과 덩굴을 가로지르는 소리, 새와 곤충들이 지저귀는 소리,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들이 스윽속 돌을 가는 소리, 그들이 조개무지에 기대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 자장 자장 야기를 잠재우는 소리……. 음악은 바로 이런 '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에서 친숙하게 접하는 소리가 일정한 구조를 가지면 음악이 된다. 음악은 다양한 빛깔의 메시지를 품고 우리에게 다가와 때로는 기쁨과 위안을 주고, 때로는 우리를 생각하고 말하게 만든다. 이 자리에서는 음악이라는 큰 범주 가운데 근대 부산의 서양음악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서양 음악의 유입과 확산

두루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서양음악 수용은 서양 종교의 전래와 함께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¹⁾ 부산에는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 예배당이 설립되고 성직자와 선교사들이 들어왔으니, 이 즈음부터 서양 노래가 부산에서도 불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찬송가를 우리말로 바꾸어 부르던 데서 서양식 노래인 창가가 비롯된다. 창가는 근대계몽기에 유입된 새로운 문명을 예찬하고 계몽의식을 고취하는 노래로 널리 불렸다. 일제의 식민통치가 엄혹하던 시절에 창가는 민족의식과 우국충정을 담은 비장한 노래이기도 했다. 식민지시대 학교에서도 창가가 널리 불렸다. 명칭은 똑같이 창가지만 제국주의 통치 논리를 주입하고 그들의 왕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하기 위한 노래였다. 화음도 없이 큰 소리로 제창해야 했으니 노래하는 기쁨, 음악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주었을 리는 만무하다.

1) 1631년 정두원이 가져온 세계지리서 『직방외기』, 이규경(1788~1863)의 『오주연문장전산고』, 1900년 양악대의 창설에서 유래를 찾는 견해도 있다.



PROGRAM

Formal Dedication
of the new
Pusan Information Center

Taecheon Dong, Pusan
12 May 1949

釜山美國公報院
新館開院式
式 順

[1949年 5月 12日]



» 『부산일보』, 1927. 6. 23, 2면. 국립중앙도서관

부산의 음악 인프라

1876년 개항 이후 부산에는 일본인 조계지를 중심으로 여러 곳의 극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일본씨름, 인형극, 일본연극, 서커스 등의 콘텐츠가 주를 이루다가 경술국치 이후 바이올린, 오르간 같은 서양 기악곡 연주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본인 여학교의 행사에 서양식 음악회가 열리기도 하고 일본 유학을 마친 음악가들이 귀국연주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1927년 6월 23일자 부산일보(일문신문)에는 '부산 악단의 고요를 깨고 영국인 20여 명이 출연'하는 음악회를 조선일보 부산지국 주최로 개최한다는 기사도 있다. 공연 장소는 국제관이다. 다른 지역보다 일찍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극장은 서양 음악이 본격적으로 향유되는 기반이었다.

해방기에는 부산미국공보원이 주요한 문화기관이었다. 일제 수탈기구인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은 1949년부터 부산미국공보원으로 사용된다.²⁾ 부산미국공보원은 개원 직후부터 음악회를 비롯해 전시회, 강습과 강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었다. 문화정치의 차원에서 학생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을 초청하여 감상하게 함으로써 향유자의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또 부산 음악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당시 부산에는 정복갑, 윤이상, 김호민, 배도순, 김점덕을 중심으로 순수음악을 지향하던 부산음악가협회가 있었는데, 이 단체는 부산미국공보원에 사무실을 두고 <현악사중주 연주회>, <청소년협주곡의 밤>, <미국민요의 밤> 등 다양한 공연을 부산미국공보원과 공동으로 추진했다.

또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음악다방을 들 수 있다. 에덴, 문화장, 카라방, 진주, 춘추와 같은 음악다방은 음악을 감상하는 공간이자 음악가와 애호가, 문화계 인사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공간이기도 했다. 1948년 6월, 문화장에서는 <명곡 레코드 감상회>를 열었다. 한 주 동안 베토벤 작품만 집중적으로 감

2) 한국전쟁 후 미국문화원이 되었다가 지금은 부산근대역사관이 들어섰다.

상하도록 기획한 이 프로젝트에는 교향곡 제5번 <운명>, 제6번 <전원>, 피아노 협주곡 <황제> 등이 선곡되었다. 이 작품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널리 사랑받는 명곡이다. “거리의 음악실”, “여러분의 낙원”, “우리의 안식처”와 같은 광고 카피처럼 음악다방은 해방기부터 한국전쟁 이후까지 부산에서 문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특히 한국전쟁기에는 부산이 피란수도였던지라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예술인들이 다방에 앉아 음악을 듣고 글을 쓰며 서글픈 심사를 달랬을 것이다.

라디오방송도 음악을 널리 향유하도록 하는 데 한몫을 담당했다. 부산방송국(JBAK)은 1935년 개국했다.³⁾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방송국이다. 실제로는 개국 연도보다 앞선 1933년경 이미 시범적으로 라디오방송을 송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일본은 한창 전쟁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니만큼 행진곡과 군가가 많이 송출되는 한편, 권번 소속 예인들이 정악(正樂)을 비롯해 판소리와 가야금산조, 민요 등을 방송하기도 했다. 당시 라디오는 귀한 매체이긴 했지만 라디오방송이 음악청중을 형성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1941년경에는 부산방송관현악단이 조직되기도 했다.

연주단체, 음악교육기관 설립과 새로운 음악청중의 탄생

식민지시대 부산에는 이미 음악 관련 단체가 조직되어 있었다. 1926년 부산음악연구회와 부산서부음악부의 창가 강습과 각종 공연, 1928년 부산음악협회 결성 기사를 토대로 일찍부터 음악단체의 주도로 서양음악의 연주와 감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이들 단체가 부산 지역민 주도로 운영되었는지 재조선일본인 중심으로 운영되었는지 현재로서는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해방기 부산에는 바이올린 김학성, 배도순, 피아노 강수범, 성악 김호민, 고태국, 오명룡, 하규한, 엄영섭, 정복갑, 박용흡, 작곡 최덕해, 박용식, 김진안, 성악 및 작곡 금수현, 작곡 및 첼로 윤이상, 작곡 및 평론 유신, 평론 김점덕이 활약했다. 일본 유학 이력을 지닌 이들이 많았다. 이 시기 음악회 개최횟수는 1946년 5건 17회에서 1949년 16건 31회로 증가했으며 음악인의 수도 100명을 훌쩍 넘는다. 연주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수한 연주 인력과 연주단체의 발전, 그리고 새로운 음악청중의 탄생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 시기 관현악단으로는 김학성이 주도한 부산관현악단이 있다. 1947년 5월, 창단연주회를 열었는데, 서양 교향곡뿐만 아니라 <양산도>, <밀양아리랑>을 연주해 민족음악의 지향을 보여주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지휘자 김학성을 비롯해 제1바이올린 3명, 제2바이올린 3명, 제3바이올린 3명, 첼로 2명, 콘트라베이스와 클라리넷, 트럼펫, 트롬본, 테너 색소폰, 피아노 각 1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3바이올린이 흥미를 끈다. 비올라 파트를 대신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윤이상도 첼로 파트 연주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3)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은 1927년 경성방송국(JODK)의 라디오방송이다.

현악합주단으로는 김학성, 임문규, 전성태, 백경준의 4중주단, 배도순, 김광수, 백경준, 윤이상의 4중단을 비롯해 3~4개의 단체가 활동했다. 단체 이름이 같거나 비슷해도 서로 다른 단체였고, 단체는 달라도 인적 구성은 겹치거나 교차한다. 바이올린 주자가 비올라 역할을 하기도 하고, 첼로 주자가 비올라를 맡는 일도 다반사였다. 현악합주 활동은 비교적 활발한 편이었지만, 관악합주단은 경남상업학교(현 부경고) 관악 4중주, 금성중학교(현 금성고) 취주악단 정도를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음악 관련 교육기관도 여럿 설립·운영되었다. 해방 전 부산에는 김학성의 바이올린의 집, 김동춘의 성악연구소, 우쯔노미야(宇都宮幸三)의 피아노교습소 등이 있었다. 해방 후 배도순이 설립한 부산음악연구소는 1947년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음악회를 개최한다. 40명 남짓 문하생으로 구성된 합창단과 현악앙상블이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관의 규모와 수준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부산음악전문학교는 성악과, 작곡가, 기악과(바이올린과, 피아노과)로 세분되어 있었으며, 김점덕, 김학성, 배도순, 윤이상, 정복갑, 김호민 등 당시 저명한 음악인들이 교수진으로 참여했다. 학생음악경연대회도 인기였다. 경남공립여자중학교(현 경남여고)는 전국합창대회에 출전하여 슈만의 <유랑의 무리>와 오펜바흐의 <호프만의 뱃노래>를 불러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국취주악경연대회에서는 부산중학교(현 부산고)가 우승을 차지했다. 음악후속세대의 양성과 성장은 부산에서 우수한 음악인을 많이 배출할 수 있었던 토대라 하겠다.

노래와 음악극의 대중적 향유

부산 사람들이 특히 좋아한 장르는 노래였다. 당시 공연에는 사업가, 은행원, 화가, 종교인, 교사, 학무국 직원 등의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아마추어 성악가들이 자주 출연하였으며, 좋은 노래를 함께 부르고 음악을 감상하는 단체인 노래하자회도 있었다. 부산 사람들이 음악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모습은 오늘날과 다르지 않다.

학교에서 열린 음악극의 인기도 대단했다. 즐길거리가 부족한 시대에 학교 음악극은 비단 학생들만을 위한 교내 행사가 아니었다. 학부모와 일반 시민들의 후원과 언론의 공연 리뷰가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어떤 공연은 공공기관과 군부대에 초청 재공연되기도 했다. 당시의 음악극은 이를테면 지역사회의 인기 콘텐츠였던 셈이다. 1948년 12월 남조선여자중학교(현 남성여고)에서 열린 <호반의 집>은 이주홍극·최술문 작곡의 오페라다. 등장인물 희석의 주제로 지정된 슈만의 <트로이메라이>는 바그너의 라이트모티프를 연상하게 한다. 1946년 11월 경남공립여자중학교에서 상연한 <궁복의 딸>은 장보고와 그의 딸을 소재로 한 김수현의 작품이다.⁴⁾ 음악, 연기, 세트, 무용, 분장, 의상이 총동원되는 종합예술

4) 이 작품은 1948년 5월 오페라 <피리와 칼>로 재탄생한다. 김수현이 경남도립극장 극장장 시절 안정적인 콘텐츠 제작을 위해 창단한 예술단 새들예술원의 첫 공연이다.



▶ 『뉴욕타임스』, 'Korean Folk Tunes Vying With Grand Orchestral Colors' (1997. 6. 17).

작품이 제작되고 상연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부산의 문화역량을 엿보기에 충분하다.

교향악단의 창단과 발전

한국전쟁기에는 해군정훈음악대나 육군교향악단의 연주 활동이 활발했다. 군인들의 결전의식을 고취하고 지역민들의 정서를 위무하려는 목적이 분명했으며, 반공 이데올로기를 고취하는 작품을 많이 연주했다. 피란수도 부산에 모여든 전국의 예술가들과의 협업은 부산 음악계의 깊이와 폭을 더했다. 전후에는 국가 재건을 위한 의지가 높았던 만큼 음악계에도 새로운 활력이 샘솟았다. 부산대학관현악단, 부산방송교향악단의 관현악 활동이 활발했으며, 이는 1962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으로 이어진다. 지역 최초의 시립교향악단이다. 이들은 1997년 미국순회연주회를 떠나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의 찬사를 받았다. 우리나라 교향악단으로서는 처음으로 카네기홀에 선 일이기도 했다. 민간교향악단으로는 1981년 부산관현악단이 창단되었다.

음악, 시대의 숨결

부산은 근대계몽기부터 외래문화의 유입과 향유가 활발히 펼쳐졌던 지역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공연예술의 물질·인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 지금 부산에서 우리가 듣는 음악은 이러한 기반 위에 수많은 음악인과 기획자, 그리고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부산의 관객들이 오랜 시간 힘을 모아 빚은 열매라 하겠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연예술의 플랫폼을 바꾸어 놓고 있듯이, 음악은 천상에 고고하게 존재하는 예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연결된 시대의 숨결이다. 음악이 가만히 우리를 위로하는 까닭이다. 음악이 주는 위안과 기쁨은 들고 누리는 사람의 몫이다.

대륙에 울려 퍼진 항일정신

먼구름 한형석

글. 장경준 국립항공박물관 전시교육실장

항일운동가 한형석은 1910년 2월 21일 동래 교동(校洞, 지금의 명륜동)에서 한흥교(1885~1967)와 이인옥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호는 먼구름이며, 중국에서 항일독립운동을 할 적에는 한유한·한유 등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다.



➤ 한중수 제공

부친 상하이 최초 독립운동단체 조직

한형석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는 아버지 한흥교였다. 그는 1885년 동래 교동에서 한규용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한규용은 동래에서 연죽철(煙竹鐵, 담뱃대) 공장을 경영하고 농사지를 논도 제법 가지고 있어 생계가 어렵지 않은 편이었다. 신학문에 대한 열정도 높아 황성신문을 창간호부터 최종호까지 빠짐없이 구독하고 보관해 둘 정도였다. 그뿐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드넓은 세계에 눈을 돌려야 한다”며 자식 교육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한흥교는 19세에 동래고등학교의 전신인 삼락학교를 졸업했다. 삼락학교 재학 시 일어과 수업에 큰 관심을 둔 그는 졸업 무렵 일본 유학을 결심했다. 부산을 떠나 오사카를 거쳐 도쿄에 도착한 그는 세이소쿠가쿠엔중학교와 야간 영어학교에 입학했다. 이어 오카야마 의학전문학교에 진학해 1910년 의사 자격을 획득했다. 이후 상하이로 건너가 신규식·조성환을 통해 신채호·조소앙·박찬익·신석우 등과 교류하면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그는 이들과 함께 상하이 최초 독립운동단체인 ‘동제사’를 조직했다. 동시에 청년교육과 군사교육을 강조한 동제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한중호조사’ 조직에 참여, 중국인 동지들을 규합하기도 했다.

1915년 5월 아내 이인옥과 동생 한정교, 장남 원석과 차남 형석이 상하이에 도착했다. 이때 차남 한형석을 처음 만났다. 1916년 3월 부친 한규용이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가족과 함께 귀국했다. 부친과 가족들의 권유로 동래 제일 부자였던 오종식의 사랑채를 얻어 대동병원을 개업했다. 하지만 일제의 감시가 강화되자 1년 6개월 만에 고향 생활을 접고 다시 중국으로 건너갔다. 이후 중국 재정부 인쇄국 의무실에서 근무하며 고향 동래에 두고 온 아내와 원석·형석 두 아들을 베이징으로 불러들였다.

명주로 만든 태극기, 고향의 흙 한 줌

1917년 겨울, 한형석은 부친의 부름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갔다. 1919년 8월 베이징의 육영소학교에 입학했으며 이때 형 원석과 함께 부친이 만든 독립운동 관련 인쇄물을 독립운동가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소학교를 졸업하고 루허고급중학교에 진학했다. 1927년 조부 한규용이 별세하자 부모와 형이 귀국하면서 중국에 홀로 남게 됐다. 이때 부친에게서 학자금과 명주로 만든 태극기, 고향의 흙 한 줌을 건네받고 이를 소중하게 간직했다. 1928년 7월 루허고급중학교를 졸업했으나 진로를 찾지 못해 고민을 거듭했다. 그러던 중 상하이로 가 평소 부친과 친분이 두터웠던 애국지사 조성환을 만났다. 조성환은 음악에 재능이 있는 그에게 “예술도 조국독립을 위해 필요하다”며 ‘예술구국활동’을 하라는 가르침을 주었다. 이에 상하이 신화예술대학 예술교육과에 진학했다. 재학 중 작곡을 좋아해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곳에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은 이후 독립군가를 작곡하고 예술구국활동을 펼치는 데 밑거름이 됐다.

1933년 7월 신화예술대학을 졸업한 뒤 상하이로 떠나 산둥성에서 교편을 잡았다. 이곳에서 한유한으로 이름을 고쳤고, 한서·한희·한석·한유 등을 필명으로 사용했다. 이때 첫 작품으로 '신혁명군가'를 발표했다. 이 작품은 중국인의 총화단결과 총궐기를 내용으로 한 군가로 중국 전군에 보급됐다. 1937년 6월 나라 잃은 폴란드 노 음악가의 해방운동을 그린 첫 가극 '리나(麗娜)'를 창작해 아동극장에서 공연했다. '리나'는 그가 시나리오, 작곡, 연출, 주연까지 맡아 공연한 첫 종합예술작품이었다. 노 음악가의 해방운동을 통해 조국을 되찾고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한 작품으로 '예술구국의 첫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 지난(濟南) 사회는 '리나'를 '초창(初創)적 작품'이라며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약산 김원봉 휘하 광복군 예술부장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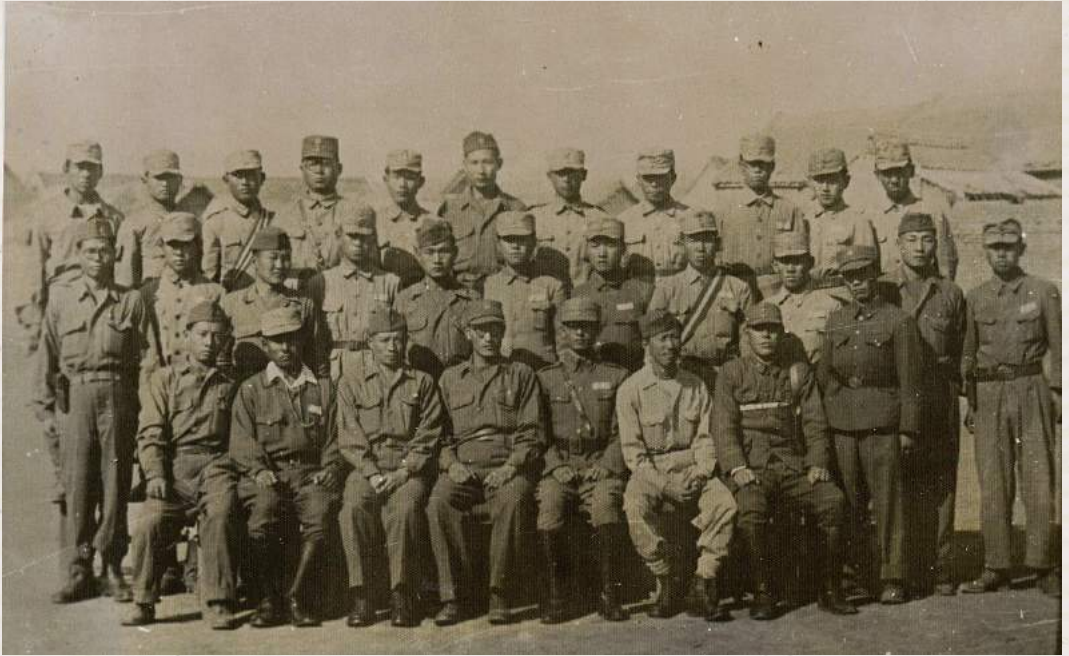
1939년 6월경에는 34집단군 제10사 정치부 공작대장에 임명돼 산시성 중티아오산 전투에 참전했다. 같은 해 10월 중국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 훈련위원회 '전시공작 간부훈련단 제4단(약칭 간사단)' 특과 총대 제2대대 예술반 음악조 소교(소령) 교관에 임명됐다. 이때 조국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나월환(1912~1942)과 운명적 만남을 갖는다. 1939년 11월 결성한 한국청년전지공작대 대장이었던 나월환은 시안을 본거지로 일본군의 기밀탐지, 한인들에 대한 초모·선전 활동 등을 펼치고 있었다. 한형석은 나월환을 만난 뒤 곧바로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입대해 예술조장을 맡고 독립운동에 온 몸을 던졌다.

1940년 4월 <신가극삼곡집>을 출간하고 1940년 5월 22일부터 31일까지 시안 실험극장에서 항일가극(오페라) <아리랑> 전 3막을 초연했다. <아리랑>은 당시 시안의 서북문화일보, 서경일보, 공상일보 등 언론으로부터 '긴장감 있는 구성, 짜임새 있는 줄거리, 음악과 배경은 근래 드문 수작'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음악사적으로도 완성된 가극 형태를 갖춰 초기 단계에 있던 중국 가극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아리랑>은 한국 최초의 오페라로 알려진 현제명의 1950년 작 <춘향전>보다 10년이나 앞선 작품이다.

1940년 9월 17일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자 한국청년전지공작대는 1941년 1월 한국광복군 제5지대로 편성됐다. 1942년 4월 약산 김원봉(1898~1958)이 이끄는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합류, 광복군 제1지대가 되자 종전의 제1·2·5지대는 통합돼 제2지대(지대장 이범석)로 개편됐다.



▶ 광복군가집(한중수 제공)



» 한국광복군 제2지대 대원들(1열 중앙 이범석 지대장, 오른쪽 두번째 한형석 / 한중수 제공)

한형석은 광복군 제2지대 예술부장에 임명돼 대원들을 가르치며 창작 활동에도 힘을 기울여 <광복군 제2지대가>, <압록강행진곡>, <조국행진곡>, <출정>, <아리랑행진곡>, <국기가> 등 독립군가를 작곡했다. 이 가운데 <국기가>는 광복군 제2지대의 국기 게양식과 해방 후 중앙청 국기 하강식에서도 일정 기간 연주됐고 <압록강행진곡>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 이 무렵 작곡한 군가들은 1943년 10월 시안 한국광복군 제2지대에서 출간한 2권의 <광복군 군가집>에 수록돼 전 광복군에게 보급, 중국어로 번역돼 향전 가곡집으로 출판 보급되기도 했다. 1944년 8월부터 1945년 9월까지 광복군 제2지대 선전부장을 역임했고 이때 여러 작품을 만들어 침체한 항일 의식을 고취하고 광복군과 중국군 연합전선을 견고하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한형석은 한국광복군 출신의 독립운동가이자 다양한 문예활동을 통해 구국 의지를 불태운 예술가였다. 하지만 그가 중국에서 펼친 독립운동 및 각종 예술 활동은 한국독립운동사 뿐만 아니라 한국근대예술사에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그가 탄생한 지 11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의 불꽃같은 삶을 조명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한 지붕 아래 두 가구 2호 연립 용호동

글. 문진우 사진가, 본지 편집위원장

부산은 1970년대 들어오면서 도시 근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심에 있던 불량주택을 시 번두리로 이주시키는 사업을 펼쳤다. 용호지구는 이때 조성된 주택단지이다. 주택형태는 2호 연립, 4호 연립으로 지었다. 2호 연립은 한 건물에 2가구, 4호 연립은 한 건물에 4가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 2호 연립은 주로 길쪽한 단층형이고 4호 연립은 2층으로 되어 있다.



» 용호지구 주택단지 전경

하늘에서 본 풍경은 레고를 줄 세워 둔 것 같이
집들이 질서정연하다.
한 지붕의 색이 두 가지로 나뉘어 서로 다르다.
이것이 한 지붕 아래 두 가구가 사는 2호 연립이다.



» 아파트 기초공사 중인 용호지구

최근 들어 주택단지의 재개발 붐을 타고 이 지역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일부 구역이 철거되고 아파트 기초공사가 한창이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머지않아 재개발될 나머지 지역에도 빈집이 많다.
주인이 떠난 공간에는 주인 없는 의자,
버려진 자전거만 덩그러니 남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옥상에 널린 빨래가 봄바람에 춤을 춘다.
 인적 없는 골목, 고양이 한 마리가 이방인을 경계의 눈초리로 쳐다본다.
 동네 양지바른 담벼락에 주민들이 나란히 모여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다.
 재개발 지역에서 제외되어 아쉬움도 있지만 설사 개발되더라도
 다른 곳에 집을 구하기엔 턱없이 모자라는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그 역시 동의하기 힘든 상황을 토로하고 있다.



» 용호지구 주택 골목의 풍경



» 주택옥상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주민



» 마천루 빌딩이 보이는 골목 어귀



» 용호지구 주택 골목의 야경

마천루 빌딩을 바로 뒤에 둔 낡은 동네에 어둠이 내려앉는다.
간간히 지나다니는 오토바이의 엔진소리,
귀가를 서두르는 몇몇 행인들의 바쁜 발걸음 소리 외에는 적막감만 있을 뿐이다.
용호동 2호 연립 낡은 동네는 이렇게 또 하루를 마감하고 있다.



감만

○○○○○

그리고 재단

창의문화촌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062 **듣기** | 관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

| 방구석에서 누리는
온택트 컬러

066 **말하기** | 방구석 프로젝트

관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

글. 김홍표 부산문화재단 시민평가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정상적인 문화행사가 열리지 못해 참 난감하다.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사실상 문화예술계 시계가 멈췄다고 해도 무방해 보인다.

온오프라인 융합문화 대안

부산시 산하 문화공연시설과 유관기관이 임시 휴관에 들어가면서 예술가들과 관객들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문화회관과 미술관, 박물관, 영화의 전당 등 모든 문화놀이터가 멈췄고 공연장의 공연, 전시 행사가 취소됐다. 반면 공연문화 행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자구책으로 마련된 ‘온오프라인 융합문화 활동’을 두고는 고무적인 반응이다. 코로나 영향으로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계와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천하는 중에 부산문화재단의 ‘방구석프로젝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온오프라인 융합문화 활동’은 4차 산업시대 문화계가 직면한 문제점들과 맞물려 새로운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창작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문화예술 영상콘텐츠가 절실한 시점이다. 부산지역 청년예술가들의 재능을 담은 ‘방구석프로



젝트’는 부산문화재단 유튜브 채널 ‘컬처튜브’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은 동영상과 사진을 이용, 전국 각지의 공연장을 연결해 성과를 공유하고 홍보하며, 우수 문화계 활동을 벤치마킹하는 문화공간이다. 이 온라인 프로젝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문화계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쌍방향 소통이



만들어가는 '미래형 융합문화예술 활동'으로 발전할 것이다.

특히 부산문화재단에서 예술가들의 단체별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과 문화놀이터 활성화를 위해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한다. 카카오톡 단독방을 이용해 '문화 공연 정보공유방', '예술가 정보공유방' 등을 개설하고 문화계 정보와 행사 계획 등이 안내되면 그들의 활동 노하우와 성과가 공유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화가 있는 삶’ 다시 되찾길

관객의 입장에서 공연은 단지 여가 수단으로 존재하므로 문화계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공연자들은 생업으로 공연이 취소되면 강제 무급 휴가에 처하게 된다. 부득이하게 공연을 한다면 공연장의 철저한 추가 방역과 바이러스 전파 대책이 세워져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약 공연이 취소되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예술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정적인 공연 시장에서 더 나아가 온라인 커뮤니티 공연 등의 활성화로 문화계의 새로운 생존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루빨리 암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문화계에 활기를 되찾아 줄 날을 기대해 본다.

한국인의 위대함은 위기에서 빛을 발한다고 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문화계 종사자와 관객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이 어려움을 극복하리라 믿는다.

최근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생계와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과 시민들의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부산문화재단 시민평가단으로 활동 중인 필자는 코로나 이전에 누렸던 ‘문화가 있는 삶’에 항상 감사함을 느낀다. 비운 뒤에 땅이 더 굳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어 문화의 봄을 맞이할 것이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자연과 문화공간 속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부산 시민들 모두 ‘문화가 있는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날을 학수고대하며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쳐본다.

방구석에서 누리는

온택트 컬처 Ontact Culture

글. 임재희 부산문화재단 시민평가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온 인류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됐다. 백신 없는 전염병은 전 세계를 패닉 상태에 빠뜨렸고, 그로인해 보이지 않는 공포가 지구를 검게 물들였다.

팬데믹에서 코로나 블루까지

연일 대중 매체는 무서운 소식을 쏟아낸다. 이런 뉴스에 둔감한 나조차도 이불 밖은 위험할 것 같아 열흘 동안 자발적 격리 생활을 지내기도 했다.

코로나가 발병한 지 벌써 석 달이 지나고 있다. 단순한 감기 바이러스로 여겼던 것이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팬데믹(pandemic)’으로 오기까지 불과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됐다. 사람들과의 최소한의 인사법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필두로 바깥 외출금지와 재택근무 등 모든 생활 반경은 집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 경제적 타격은 둘째 치고, 익숙하지만 낯설게 된 집이란 창살 없는 감옥에서 하루 종일 가족 구성원과 부대끼며(혹은 타인과의 사회적 교류 없이 더욱 고립되는 싱글족을 포함해) 개인의 정서가 점점 고갈됨을 맛보고 결국 ‘코로나 블루’에 이르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다.



코로나가 만든 뉴노멀, 온택트 컬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르게 된 지금, 자의든 타의든 언젠가 마주해야 했던 이 상황은 이렇게 불쑥 우리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인류는 늘 위기 때마다 희망을 노래했다. 우리 민족 역시 가장 힘들 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더 정확하게는 힘든 마음을 달래고자) 더욱 노래를 불렀다. 이러한 때의 노래는 곧 위로였고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희망이었다. 노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글과 그림, 또는 현실을 풍자하는 공연, 그 모든 것이 하나로 귀결된다. 우리 인류는 그렇게 우울한 현재를 극복하고 밝은 내일을 위해 문화란 도구로 나를 위로하고 이웃을 격려해왔다.

비대면 상황에서도 지금의 인류는 문화를 통해 대면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탓하지 않고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활용해 위로와 격려를 전하며 집 안까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전시장을 가고 공연장에서 공연자와 소통하며 즐기던 당연한 문화에서 이제는 익숙하지는 않지만 온라인에서나마 그러한 교류를 누리고 정서적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온택트(Ontact)’도 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질병으로부터의 안전 욕구와 정서 안정의 욕구를 충족하는 ‘온택트 컬처(Ontact Culture)’는 그간의 당연한 공연 관람의 시스템과 관념을 긍정적으로 전환시켜준 좋은 경험이라 생각한다.

온택트, 新 르네상스로 위기 극복

코로나라는 질병에서 코로나 블루라는 정서적 고갈까지 이른 이때에 관객은 집에서 온라인이란 무대를 접속한다. 공연 연출자들은 이런 형태의 욕구에 반



드시 응답해야 한다. 이전과 다른 형태의 기획이기에 더 많은 고민으로 관객과의 비대면 소통에 대한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코로나와 같은 상황은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기존의 관객과의 소통이 아닌 다양한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이다.

방구석에서도 예술가와 관객이 만날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 어쩌면 문화 예술은 르네상스 이후 또 한 번의 커다란 꺾임을 깨고 대변화의 시기가 올 것이라 확신한다. 그렇기에 예술가도 관객도, 변화되어가는 문화 예술의 환경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 문화 역시 유기체와 같아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한다. 인류가 만들어가는 문화가, 또 문화 속에 속한 인류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현 시대의 문화를 변화시켰다. 방구석에서 문화 예술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의 상황에 맞게 진화하는 문화 예술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어떠한 상황이 도래해도 인류 내면에 뿌리내린 문화는 결코 시들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는 잊고 있었던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줬다. 늘 그랬듯이, 이 어려운 시기를 ‘온택트 컬처’란 이름으로 이겨내길 소망한다.

방구석 프로젝트

글: 김진섭 부산문화재단 청년문화팀

프로젝트 기간 동안 영상 누적 조회 수 2만 5,000건, 기존 두 자릿수 구독자에 불과했던 채널이 프로젝트 실행으로 10배를 훌쩍 넘겼다. 부산문화재단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컬처튜브>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방구석> 프로젝트는 영상 콘텐츠의 파급력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문화예술 영상콘텐츠 제작... 반응 폭발적

<방구석> 프로젝트는 기존 청년 크리에이터 발굴 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로 인해 긴급 변경돼 탄생한 프로젝트이다.

코로나로 인해 지역 예술인들의 고충 및 지원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상황 속에서 청년문화팀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계속됐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진행된 문화예술사업 중 경기도의 드라이브 콘서트, 이탈리아에서 유행했던 베란다 콘서트 같은 사업을 이미 2~3월경 준비하고 계획을 마쳤으나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에 맞지 않아 추진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

예술 프로젝트를 팀 내에서도 계속 고민 중이었고, 그 끝자락에 탄생된 것이 <방구석> 프로젝트이다. 코로나 확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야외활동 및 출근조차 힘든 상황 속에서 집에만 있어야 하는 아이들과 부모를 위해 안방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영상 콘텐츠를 부산의 청년들이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당장 일거리가 없어진 청년들에게는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집에만 갇혀 있는 아이들에게는 즐길 거리를 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전국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 그렇게 시작



된 사업은 14명의 청년예술가를 시작으로 3월 19일부터 매일 2개의 영상을 제작해 업로드했다.

시작과 동시에 지역 언론, 방송사, 문화예술기관, 공공기관 등 많은 곳에서 관심이 쏟아지며 유명세를 치르기 시작했다.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 또한 호평이 많았다. 그 반응을 보면 '시기적절하며 유익한 프로젝트다',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할 거리가 생겨서 너무 감사하다' 등 '코로나로 인해 힘든 삶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됐다.

영상 활용에 대한 내부 인식 개선

사업의 막바지에 이르러 44명(대표자)의 부산 청년 및 청년예술가가 영상 제작에 참여하게 됐고, 부산 청년만의 문화예술 영상 콘텐츠 112편을 제작하며 많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방구석> 프로젝트는 부산 청년과 시민뿐만 아니라 재단에도 고무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사실 지난 재단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컬쳐튜브>의 인지도가 미미하였으나, 이번 <방구석> 프로젝트를 통해 재단 사업의 영상 활용에 대한 내부 인식을 개선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또한 프로젝트 시작 전 구독자 수는 두 자릿수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10배가 넘는 구독자

수를 보유하게 됐고, 프로젝트 기간 동안 누적 조회 수 2만 5,000건 이상을 기록하며 재단에 영상 콘텐츠의 파급력을 다시금 일깨워 줬다. 이렇게 다양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재단에 선사한 <방구석> 프로젝트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참여한 44명의 청년 중 2명을 우수 콘텐츠 대상으로 선정하고 10편씩 전체 20편을 제작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콘텐츠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참여한 지역 청년들의 열정과 노력에 대해 결실을 맺는, 프로젝트의 종료를 의미함과 동시에 재단에서 앞으로 진행될 영상 콘텐츠 관련 사업의 새로운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문화예술 영상 콘텐츠 사업의 가능성을 눈으로 확인하며 무수히 생산되는 영상 콘텐츠들 속에서 지역 예술가들이 문화예술 콘텐츠로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며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에 있다. 이러한 건강한 고민들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며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이번 <공감 그리고>를 통해 <방구석> 프로젝트에 참여한 부산 청년들과 많은 관심을 보여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내 삶과 동행하는 예술,
함께 행복한 문화도시 부산

계간지 「공감 그리고」 주요 배포처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며, 배포를 희망하시는 문화공간이나 단체는 부산문화재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051-745-7224)

감만창의문화촌/조선통신사역사관/CATs 사상인디스테이션/홍티아트센터/F1963/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도시철도 북 하우스(시청역, 중앙역, 연산역, 온천장역, 수정역)/부산관광안내소(노포동, 부산역, 김해공항)/부산시립시민도서관/부산시 중앙도서관/부산국립국악원/부산시립미술관/부산시민회관/부산문화회관/울속도문화회관/금정문화회관/동래문화회관/영도문화예술회관/해운대문화회관/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또따또가 운영지원센터/상상공간 아르케/토통이극장/부산지역 작은도서관, 민주공원 등

부산문화재단 후원회원 모집

여러분을 부산의 문화예술인으로 모십니다.

부산의 문화예술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 분! **사**소처럼 부산문화재단과 늘 함께하고 싶은 분!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 **희**려함보다는 꾸준한 관심으로 **재**단과 기업체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하나 되어 **단**단한 후원을 쌓아가는 당신이야말로 부산의 문화예술인입니다.



- 세제 혜택(연말정산 등)
- 재단 기념품 증정
- 재단 발간도서 발송(공감 그리고, 연차보고서 등)
- 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행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시민평가단 우선순위 배정



- **일반회원** : 매월 1만 원 정액 납부
- **연간회원** : 매년 20~50만 원 정액 납부
- **평생회원** : 500만 원 이상 일시불 납부
- **단체회원** : 단체, 기관, 법인, 기업이 1,000만 원 이상을 일시불로 납부



-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 www.bscf.or.kr ▶ 알림마당 ▶ 후원회원 모집 ▶ 후원회원 가입 신청하러 가기
- 문의전화 : **부산문화재단 재정관리팀** 051-745-7251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며, 별도의 구독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부산문화회관, 구군 문화회관 (해운대, 을숙도, 금정, 동래, 영도), 부산시민회관, 감만창의문화촌, 조선통신사역사관, 사상인디스테이션, 흥티아트센터, 도시철도 북 하우스, 또따또가 운영센터, 영화의전당, 부산시립미술관, 영광도서관, 민주공원, 부산지역 관광안내소 등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무료 배포처 문의 : T. 051-745-7224 E-mail. bscf@bscf.or.kr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4854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 744 7707 F. 051 744 7708 ~ 9
www.bscf.or.kr



9 772586 107008
ISSN 2586-1077

유경혜 - 홍시 2018